

침묵 오리온에 제주도 '최후통첩'

용암수 국내 시판 논란... 보완요구에도 계획서 미제출도 "조만간 마지막으로 공문 후 공급 중단 여부 검토" 오리온은 "향후 도와 원만히 합의해 문제 풀어나갈 것"

제주 용암수를 시판한 오리온이 '국내 시판'을 하지 말아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을 무시하면서 '물 공급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달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제주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요청은 같은 달 17일 PPT형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국내 시판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주도가 '보완' 요구를 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리온에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주도가 오리온에 공급되는 용암수(염지하수)를 중단시킬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만간 사업계획서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제출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원희룡 지사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보는 상

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오리온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해 공식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궁극적으로 용암수 공급 중단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리온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유를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제주도와 원만히 합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수 구좌읍 한동리 제주용암수산업단지에서 용암수 1일 약 1만t을 취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리온이 받는 용암수는 하루 900~1000t 가량으로 알려졌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새해 첫 업무 재래시장서... "민생경제 활력"

어제 제주시민속오일시장서 제주도, 2020년 사무식 열어 원 지사 "현장 중심 소통을"



제주도는 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2020년 사무식을 열고 올해 도정 최우선 과제인 '민생경제 활력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새해 첫 업무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시작하면서 올해 도정 최우선 과제인 '민생경제 활력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제주도는 2일 오전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2020년 사무식을 열었다. 이날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각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청취하면서 새해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사무식에서 원 지사는 공직자들에게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민생소통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올해 민생경제 활력화를 제1의 목표로 하는 제주도정은 현장 중심으로 가야한다"면서 "공무

원들과 각 기관 단체들이 책상에 앉아서 우리 것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출발하고, 현장에서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 1차 산업, 가공 유통산업, 관광업, 건설업, 미래 산업 등 제주의 많은 기반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관이 잘 협력해서 이겨낸다면 어떤 위기

가 다가와도 제주에 청정브랜드라는 보물섬 가치를 앞세워서 지속가능한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사무식이 끝난 후 시장 상인들을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고, 어려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정이 상인들과 함께 헤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겨울바다서 새해 시작 지난 1일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열린 제20회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 뱃수영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희망찬 한해를 다짐하며 겨울바다로 뛰어들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강화민기자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로 248개소 해제

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심의 등 거쳐 6~7월중 고시"

올 하반기에 제주시 관내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로 542개소 중 지나친 경관훼손과 지장물과다분포 등으로 도로개설이 어려운 248개소가 해제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설명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

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는 제주시 관내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로 542개소 가운데 지나친 경관훼손과 지장물과다분포 등으로 도로개설이 어려운 248개소는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시가지 확장 등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지역→상업지역 등 용도지역상향은 가급적 사양해 상향의견 가운데 15~20%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반영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2차 의견수렴을 거쳐고 제주도의회와 경관·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고 난 후 6~7월중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제주시장 읍면동 연두방문 당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한 곳이 많이 있었는데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읍면지역 도로는 대부분 폐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이후 제주시가 처음으로 입안해 시행하는 것으로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하고, 기존 현황도로를 최대한 활용한 도로선형 정비 등을 통해 획일적인 격자형 도시계획의 형태를 탈피하고 있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삼다수공장 가동되는 날도 총파업

JPDC노조, 도청 앞서 집회

단체교섭 체결이 무산되면서 파업에 돌입한 제주도개발공사(JPDC) 노동자들이 제주도청에 집결했다.

JPDC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석)은 2일 제주도청 앞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겨울철 정기검사를 마

친 삼다수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는 날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JPDC 노·사는 파업 나흘 만에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났다. 오경수 사장이 사퇴하면서 새롭게 꾸며진 경영·실무진이 협상에 나섰다. 사측에서는 △파업 철폐 후 단체교섭 체결 △경영권 침

해 및 법 위반 관련 조항 발생시 수정 등을 주장했고, 노조측에서는 △단체교섭 체결 후 파업 철폐 △교섭·체결권이 있는 사측 실무진 구성 △공식사과문 발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집회에서도 JPDC 노조는 "개발공사는 결성력 있는 책임자가 필요하다"면서 "오경수 사장 후임으로 소통이 되는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JPDC노조는 매일 제주도청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릴레이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파업 사태의 책임을 지고 오경수 사장이 지난달 28일 사퇴한 데 이어, 같은달 30일에는 이경호 상임이사(기획총괄)를 사장 직무 대행으로, 한재호 상임이사(삼다수 공장장)를 단체교섭 대표로 선임했다.

송은범기자

선택 2020 제주의 미래

고병수 예비후보 "그린뉴딜 정책 추진"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제주시갑·사진)는 2일 정책브리핑에서 "그린 뉴딜정책을 통해 새로운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경제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제와 사람을 살리는 휴먼뉴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특히 "그린 뉴딜정책이 성공하려면 대기업 중심이 아닌 지역 중소기업 등 지역 경제 생태계와 연계되어야 한다"면서 "그린 뉴딜 정책으로 전환 과정의 공공사업에 있어서 지역산업, 중소기업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순환경제센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 참여형 그린뉴딜 특별법 제정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성명·연령·정당·직업·경력 순



▷ 서귀포시 ▷ 임형문 ▷ 58 ▷ 자유한국당 ▷ 농업 ▷ 전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장, 현 자유한국당 제주특별자치도당 부위원장

장학생선발공고

2020년도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 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인원** : 40명 (삼성후에 30명, 타성 10명)
- 장학금 지급액** : 1인당 200만원
- 선발대상 (자격)**
생활이 어려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장래가 크게 촉망되는 학생, 단, 졸업예정자, 휴학생 및 휴학·복학예정자 신청불가
○ 삼성의 후예로 대학교 및 일반 대학원 재학생
○ 타성은 제주내 대학교 재학생
- 제출서류(구비서류)**
① 장학생 신청 신청서(소정양식)
② 신청인 서약서(소정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소정양식)
④ 재학대학교 총장 추천서(소정양식)
⑤ 성적증명서(2019년도 2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⑦ 지방세 세목별(전체) 과세증명서 (보호지분 각 1통)
※ 소정양식은 각 중문회(대중회) 배부 및 삼성힐 홈페이지(www.samsunghycol.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20. 1. 8.(수) 09:00 ~ 1. 17.(금) 17:00까지
- 제출처** : 직접 방문 접수
○ 삼성 후에

구분	주소	연락처
고제중문회총본부	제주시 중문로 186-1 4층(이도일동)	064) 751-0711
양제중문회총본부	제주시 중문로 186-1 2층(이도일동)	064) 751-0811
제주부씨대중회	제주시 중문로 186-1 3층(이도일동)	064) 751-0911

 ○ 타성 : 제주내 해당 대학교 장학담당부서
- 선발방법**
○ 장학생의 선정은 추천권자가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추천한자 중 본 재단 이사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 심사후 최종 확정하여 본인 및 해당 대학교에 통지함.
- 장학생 발표 및 장학증서 수여식 일정**
가. 장학생 발표 : 2020. 2. 7.(금) 삼성힐 홈페이지 공고, 개별 통보 및 각 중문회, 대학교 통보 예정
나. 장학증서 수여식 : 2020. 2. 14.(금) 11:00 예정
- 장학금 지급**
2020년 장학증서 수여식 후 개별별 지급
-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라. 학자금 증복지원 방지 관련 법률 및 관계 규정의 의거,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는 점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재단 사무국 및 각 중문회(대중회) 사무실로 문의 바람.**
※ 재단 사무국 (전화 722-3315)

2020년 1월 일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
이사장 고정언

“제주해녀항일운동 제88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일제 강점기인 1932년 1월 12일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에 항거, 민족 자주성을 외치면서 분연히 일어난 제주해녀항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식을 아래와 같이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시 : 2020년 1월 12일(일) 11:00
- 장소 : 해녀항일기념탑, 동녕도서관
- 행사내용 : 추모제 및 기념식 (해녀상 시상)
- ▶ 추모제 : 09:30 · 시가행진 : 09:30
- ▶ 기념식 : 11:00

■ 연락처
- 사무국장 김성협 ☎ 010-9458-2525
- 위원장 강창협 ☎ 010-3691-2336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강창협